

'지역화폐 유통' 허브 만든다

京畿시장상권진흥원 내년 7월 설립

내년 2월 조례제정 등 거쳐 운영
소상공인 홍보·교육, 시·군 협업
가맹점 확보 등 유통 활성화 역할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공약인 '지역 화폐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전담할 경기 시장상권진흥원이 내년 7월 설립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성남 등 일부 시·군에서 유통하는 지역화폐의 도내 31개 시·군 전역 확대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1순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12일 도에 따르면 이날 말 도의회에 제출하는 1차추경예산안에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과 관련한 연구용역비 7000만원을 반영했다.

용역에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민경제본부,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본부, 경기기획실 등 3개 본부로



경기도청전경.

/경기도

구성된도출연기관인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신설하는 데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게 된다.

내년 2월 용역을 마무리한 뒤 조례 제정과 행정안전부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은 지역화폐 가맹

점 확보, 소상공인 교육·홍보, 시·군 협업 등의 업무를 통해 지역화폐 유통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공무원복지포인트 등을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의 소득향상과 전통시장·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metrosecoul.co.kr

광주·전남 6월 제조업 생산·고용 감소

전년비 광주 5.6%·전남 5.2% ↓
고용자 수도 줄고 소비·수출 늘어

올해 6월 광주·전남의 생산과 고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했지만 소비와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동향에 따르면 6월 중 광주의 제조업 생산은 고무·플라스틱(-25.2%), 기타 기계·장비(-8.5%)를 중심으로 감소해 작년 동기 대비 5.6% 감소했다.

전남 역시 기타운송장비(-34.6%), 금속가공(-26.3%)을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이 5.2% 감소했다.

취업자 수도 광주가 5천900명, 전남이

4천300명 줄었다.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가 늘었지만 제조업(광주 7100명·전남 3700명 감소)과 농림어업(광주 3800명·전남 2300명 감소)에서 고용이 줄어 들었다.

소비·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중 광주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작년 동기 대비 0.7%, 전남은 1.1% 각각 증가했다.

승용차 신규등록 대수 역시 광주 3천545대, 전남 7천631대로 각각 5.7% (196대), 29.9% (1757대) 늘었다.

수출은 광주 2.8%·전남 16.5% 증가했으며 수입도 광주 3.5%·전남 36.4% 증가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5555knj@

광주 북구 일반 수박보다 3배 큰 '무등산 수박' 15일 출하

단맛 좋고 과육 감칠맛 독특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와 무등산수박생산조합(대표 김전중)은 무등산 수박(사진)이 오는 15일 첫 출하를 시작으로 10월 중순까지 '무등산 수박 공동직판장'에서 판매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무등산 기슭에서만 생산되는 무등산 수박은 오래전부터 광주를 상징하는 특산품으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올해 생산량은 현재 11농가에서 2,000여통을 수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등산 수박은 진초록색 껍질에 줄무늬가 없고 20kg 이상의 대형과로서 일반 수박에 비해 2~3배나 크고 원시적인 단맛과 과육의 감칠맛이 독특하다.

또한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 B와 C가 풍부하여 신진대사 촉진과 이노작용이 잘돼 성인병 예방과 당뇨에 특효가 있고



해독작용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등 명품수박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

무등산 수박 구입은 공동판매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주문을 통한 택배도 가능하며, 가격은 8kg짜리 2만원, 16kg짜리 10만원, 20kg짜리 18만원에 판매된다.

특히 고품질의 수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공동직판장 선별출하, 품질인증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덜 익거나 부패된 경우에는 상품 리콜제를 실시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통해 무등산 수박의 명성을 지켜나가고 있다.

아울러 무등산 수박의 성공적인 출하 및 판매를 위해 오는 9월초에 금곡마을 공동직판장에서 재배농가, 주민 및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등산 수박 출하기원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우리 지역 특산품으로 특유의 향과 독특한 맛으로 인정받고 있는 무등산 수박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대만 인기 과자 '누가크래커' 맛보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하 1층 식품관에서 누가크래커로 유명한 '몽상82'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누가크래커는 대만이 원조인 과자로 대만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의 선물 필수템으로 유명하며, 짭짤한 맛의 아채 크래커 사이에 달콤한 누가를 샌드해 '단짠단짠'의 중독성 있는 맛을 느낄 수 있다. '몽상82'는 서울 이태원 경리단길에서 유명세를 얻은 브랜드로 오리지널, 크랜베리, 커피, 딸기 등 다양한 맛의 누가크래커가 대표적이다. /롯데백화점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한빛원전3호기 재가동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빛원전 3호기 부실공사·안전성 조사하라"

재가동 계획 중단 촉구

한빛원자력발전소 3호기 부실공사와 제작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이하공동행동)은 그동안 주장해 왔던 부실공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한빛 3호기 재가동 계획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원전 지역사무소를 찾아가 최근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한빛3·4호기는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이후 탈핵 분위기 속에 지어진 최초의 핵발전소로 원가절감을 위한 절차 생략 등이 고스란히 반영된 실험적 성격이 강한 발전소일 수밖에 없다"며 "한빛 3호기에서도 격납철편 배면에 콘크리트 미탈설 부위가 수백에서 수천개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주장을 하며 가동을 하겠다는 것은 자신들(한수원)의 이익을 우선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또 ▲1994년 검사지적사항 표가 발행됐음에도 콘크리트 미탈설 부위가 현재까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 처벌할 것 ▲한수원과 정부는 핵발전소의 안전성보다 전력수급이 먼저인지 확실하게 밝힐 것 ▲한빛3·4호기 건설 당시 부실공사에 대해 영광지역 주민들에게 사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 1월 15일 당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실시한 검사에서 '격납철편 내부철편에 대한 점검결과 일정규모 이상의 콘크리트 미탈설 부위가 확인됐다'는 내용이 적시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용국 공동행동 대외협력실장은 "1994년 발행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 평화위원회에서 발행한 '위험한 핵발전소'라는 자료집 27쪽 부실시공에서 수의 계약으로 문제가 됐던 현대건설은 무허가 콘크리트공장 운영으로 무리를 일으킨 바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며 "그동안 소문만 무성할 뿐 외부반출 문제, 1994년부터 콘크리트 공극이 다수 확인됐으면서도 조사는 했는지, 향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 영광=은하수 기자 ehs1203@

전남 장성군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점검 강화

장성군은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비브리오패혈증 감염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관내 횡집과 시장을 대상으로 어패류 가검물 검사와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성군보건소는 지난 5월부터 영농교육장과 경로당, 보건지소 등을 순회하며 비브리오패혈증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수족관물과 어패류의 비브리오균 검사, 어패류용 칼, 도마 등의 구분 사용 및 소독 여부 점검, 어패류 취급업소 대상 예방교육·홍보 등 감시활동을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고위험군인 간질환자(만성 간염, 간경화, 간암)와 알코올 중독자, 면역저하 환자 등은 감염시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져 더욱 주의해야 함에 따라 고위험군 120여명에 대해서는 예방수칙을 우선으로 안내하고 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매년 6월~10월경에 주로 발생하며, 해·하수 온도 18℃ 이상에서 균활성도가 높아 특히 여름철에



주의가 필요하다. 감염시 주로 발열, 오한, 복통, 구토, 설사, 하지통증, 발진, 수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 날 것으로 섭취 피하기 ▲피부 상처 시 바닷물 접촉 금지 ▲어패류는 -5℃ 이하로 저온보관 또는 85℃ 이상 가열처리 ▲날생선 및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소독 후 사용하기 등의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전남 장성=봉채영 기자



광주 동구

'문화재야행 달빛걸음' 성료

광주 동구가 지난 11일 '2018 하반기 문화재야행 달빛걸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행사는 10~11일 이틀간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10일에는 집중호우가 내려 대부분 행사가 취소됐다. 그러나 11일 행사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상품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실험무대가 됐다.

'달빛걸음'은 역사와 문화재를 친근하게 접해보는 야행 프로그램으로, 광주 동구는 지난해부터 2년 연속 문화재청 공모에 선정돼 행사를 진행했다. /광주=봉채영 기자